
2021학년도 수시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체육계>

2020.12.5.(토) 오후 실시



경희대학교 입학처

1.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개인은 흔히 정부나 기업의 감시 대상이고, 역학 관계에서 그들에게 속절없이 밀리기 십상이다. 자신의 정보가 불법 수집, 분석, 저장, 공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알게 된다고 해도 속수무책이다. 우리는 권력 기관이 감시의 수준을 높여도 그것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침해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든 누구든 감시하면 어때? 나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으니 괜찮아.’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IT 보안 전문가 브루스 슈나이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화장실에 갈 때, 샤워를 하며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다. 직장 상사 모르게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홀로 명상을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는 행위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죄를 짓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프라이버시는 주어진 장소와 상황, 맥락에 맞는 페르소나*를 발현할 수 있게 해 준다. 페르소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공장소에서 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변별적으로 작동된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는 우리 각자의 인격과 사회적 얼굴을 보장하는 ‘인권’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다.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고 연기한다. 말과 행동에 의도적 제약을 가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위축시키는 이른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이다. 프라이버시의 참뜻을 이해한다면, 잘못된 게 없어도 프라이버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 지점에서 일상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우리는 지금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웨어러블 컴퓨터와 집 안의 ‘사물인터넷’을 통해 온갖 정보를 공유하며 또 공개하고 있다.

* 페르소나(persona): 우리가 외부로 표현하는 개인의 이상적 측면.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안전하게 수행하면서 주변 세계와 상호 관계를 맺는 데 요청됨.

[나]

푸코는 원형 감옥 파놉티콘(panopticon) 모델을 한 사람의 권력자가 만인을 감시하는 현대 정보사회의 상징으로 읽는다. 파놉티콘에는 바깥쪽으로 원주를 따라 죄수를 가두는 방이 있다. 중앙의 원형 공간에는 간수가 위치하는데, 그는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파놉티콘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죄수는 자신을 감시할 수 있는 간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학자 보인은 최근 사회적 질서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감시보다는 대비와 예방에 초점을 둔 사회, 감시의 쌍방향성이 나타나는 탈파놉티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 분산 네트워크는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빅 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전통적인 주장은 “바로 당신이 감시하는 빅 브라더이다.”라는 말로 대체된다. 시민과 다양한 NGO들에 의한 정부 권력 감시,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감시, 그리고 정보 공개권의 확보 등이 가능해지면서 역감시 기제의 작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업의 소비자 정보 수집도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거치곤 한다. 특히 쌍방향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정보 공개도 투명해지고 있다. 이로써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시놉티콘(synopticon)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시놉티콘은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 서로를 감시하는 체계다. 사회학자 라이언이 지적했듯이, 감시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다]

장작불 잦아들고
몇 걸음씩 뒤로 물러나 있던
어둠이 성큼 다가와 있다
жат나무숲에 닿아 멈춘
어둠의 끝은 은하 저쪽 끝까지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

жат나무숲 속에는
전원이 없다
핸드폰을 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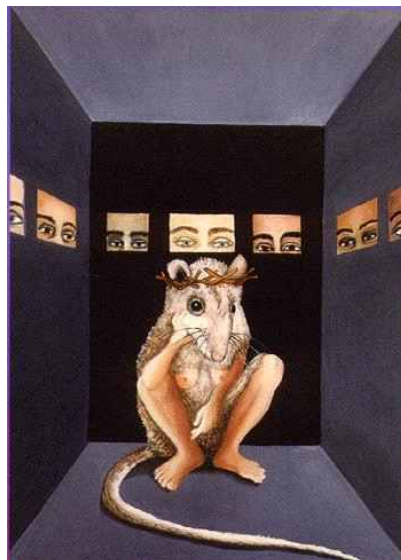
침낭 속으로 들어가
얼굴을 내민다
내 얼굴과 어둠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마침내 언플러그드
빈틈없는 어둠
꿈 없는 잠
나는 탈주에 성공한 것이다

[라]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쳐온 로봇공학자 한스 모라벡은 1988년 『마음의 아이들(Mind Children)』이란 책을 펴낸다. 이 책에서 모라벡은 2040년까지 사람처럼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로봇이 개발된다고 전망한다. 이런 로봇이 출현하면 놀라운 속도로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2050년 이후 지구의 주인은 인류에서 로봇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로봇은 소프트웨어로 만든 인류의 정신적 자산, 이를테면 지식·문화·가치관을 모두 물려받아 다음 세대로 넘겨줄 것이므로 자식이라 할 수 있다. 모라벡은 인류의 미래가 사람 몸에서 태어난 혈육보다는 사람 마음을 물려받은 기계, 곧 마음의 아이들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되며 진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모라벡은 마음 업로딩(mind uploading)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뇌 속에 들어 있는 사람 마음을 로봇과 같은 기계 장치로 옮기는 것을 마음 업로딩이라고 한다. 사람 마음이 로봇 속으로 몽땅 이식되면, 사람은 말 그대로 로봇이 될 것이다. 로봇 안에서 사람 마음은 사멸하지 않게 되므로 디지털 불멸(digital immortality)이 가능해진다.

[마]



린 랜돌프, <실험실, 혹은 앙코마우스의 수난>, 1994

앙코마우스™*는 생득적인 인간의 몸 안에 발생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존재다. 그/그녀는 포유동물이면서 유방암을 야기하는 인간의 종양 유전자, 앙코진(oncogene)의 거처다. 그/그녀는 우리의 희생양이며,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견뎌야 한다. 일방적 특권을 가진 우리에게 ‘암 치료’를 약속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그녀의 존재에 찬성하든 안 하든 간에 그/그녀는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해 계속 육체를 내줘야 한다. 그리하여 그/그녀의 인생은 실험 무대다. ‘암 치료’를 위한 탐구라는 우리의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운명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 우리 중 누군가는 언젠가 앙코마우스™나 그/그녀의 후속 모델 설치류에게 큰 빛을 지게 될 것이다. 앙코마우스™는 고유성을 가진 단일 개체로 호명되기 어렵다. 다양한 상품의 이식 유전자 연구 생쥐 중 한 부류일 뿐이다. 그/그녀는 질병, 즉 미국 여성 1/3이 걸린다는 유방암의 살아 있는 동물 모델이다. 앙코마우스™는 초국가적 자본의 교환 회로에서 평범한 상품으로 흘러 다닐 것이다.

유래 없는 특허품인 그/그녀는 거대한 비유,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그녀는 흡혈귀처럼 혈통의 순수성, 종 구분의 확실성, 성과 젠더의 선명성 등을 즉각적으로 교란하는 존재다. 일차적으로 그/그녀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판단은 유방암에 걸린 이들의 몫일 것이다. 그러나 그/그녀가 던지는 질문은 훨씬 더 광범위한 성찰을 요한다. 우리는 그/그녀를 이용하려는 욕망의 이면에서 공포를 느껴야 한다. 그/그녀가 비약적인 개선의 가능성에 대한 비유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만큼 심대한 침해에 관한 비유라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 TM: 상표(trademark)를 가리키는 기호.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시.

[바]

인간향상(human enhancement)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건강 수명 연장이나 노화의 완화를 비롯하여 지적,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능력의 개선 혹은 강화를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상이라는 표현 자체만을 본다면, 마치 인간 존재의 나아짐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통해 향상되는 것은 인간의 부분적인 능력이다. 더 똑똑하고 신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인간 존재의 나아짐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실천적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윤리는 나와 타인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지향에 맞춘 삶을 살면서 동시에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지속해야 인류가 더 나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수주의자는 인간의 가치를 위협한다고 생각해 향상기술을 거부한다. 하지만 인류가 기술 문명과 함께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켜 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의 나아짐을 위해 향상기술을 사용하는 태도다. 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이들은 인간향상이 도덕적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향상기술 안에 존재하는 위험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조정되고 해소될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공공성을 중시하는 이들은 향상기술의 안전한 관리와 윤리적 공유를 위해 시민, 국가, 인류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만약 인간향상을 개인과 시장에 맡긴다면, 활용과 접근의 측면에서 새로운 불평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비약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향상기술은 그 자체로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 주지도, 더 나은 사회나 삶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 관건은 삶의 가치와 인류 공동체의 행복 증진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려는 의지다. 그런 점에서 정부나 사회단체, 개별 시민 모두가 민주적 공론장을 열어 가야 한다. 그곳에서 새로운 향상기술과 함께 출현할 수 있는 윤리적 논점을 공유하며 인간향상의 방향을 모색해 갈 필요가 있다.

[논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논제 II]

제시문 [바]의 관점을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이나 입장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배점 60점]

2.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I>

제시문 [가]와 [나]는 정보사회 속 기술적 도구를 통해 실천되는 ‘감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는 디지털 기술 문명 속에서 벌어지는 권력 기관의 시민을 향한 감시가 심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황과 장소, 만나는 사람에 따라 변별적으로 작동하는 페르소나의 특징을 설명하며, 디지털 감시 환경이 인권적 가치를 갖는 프라이버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현대 정보사회가 권력자의 만인에 대한 감시 모델을 벗어나 탈과놉티시즘 질서로 전환되고 있다고 본다.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 분산 네트워크의 발달로 시민의 역감시 기제가 작동함으로써 권력자와 대중이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의 출현을 진단한다.

[가]와 [나]는 감시의 양상과 성격에 대한 관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감시가 시민들의 일상을 향해 작동되는 측면만 다룬다. 그에 반해 [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권력 기관과 시민들의 감시 가능성이 쌍방향으로 실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는 감시의 부정적 성격을 부각하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일상생활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에 따라 권력 기관,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역 감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645자)

<문제 II>

제시문 [바]는 인간향상에 관한 세 가지 논점을 드러낸다. 첫째, 향상기술이 인간 존재와 인류 사회의 나아짐을 보장하진 않는다. 기술이 이끄는 향상은 인간의 부분적인 능력 개선에 국한된다. 둘째, 인류는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켜 왔기에, 향상기술이 인간 가치를 위협한다는 일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셋째,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의 나아짐을 위해 향상기술을 사용하는 태도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공동체적 관리를 중시하는 태도의 조화가 필요하다.

[다], [라], [마]의 상황과 입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다]는 기술 문명에서 탈주해 자연에 귀속되는 순간을 누리는 시적 화자가 등장한다. 그는 핸드폰 등으로부터 ‘언플러그드’되면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다. [바]의 관점에서 [다]의 상황은 개인의 도피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로 규정될 여지가 있다. 시적 화자의 상황에 대한 공감 여부를 떠나서 향상기술의 바람직한 사용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의 고민이 더 중요하다.

[라]는 2040년까지 인간에 근접한 로봇이 개발되고, 2050년이 지나면 지구의 주인이 인간에서 로봇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한다. 사람의 마음을 물려받은 로봇, ‘마음의 아이들’에 의해 인류의 미래가 새롭게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과학기술을 통한 향상이 곧바로 인류 사회의 나아짐이 아니라는 [바]의 주장과 대치된다. [바]에 따르면, 마음 업로딩 기술 등은 당위적으로 수용할 대상이 아니라 그 활용 방향을 숙고해야 하는 논제이다.

[마]에 등장하는 양코마우스™는 유방암 치료를 위해 개발된 실험쥐이자 하나의 상품이다. 그것은 인간 신체를 개선시켜주는 긍정의 이미지만을 갖지 않는다. 인간향상의 가능성과 윤리 침해의 이중적 비유로서 생명과 상품, 인간과 동물, 암수의 경계를 교란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양코마우스™는 유방암에 걸린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활용하는 대상일 수 있지만 공동체 차원의 논의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바]의 관점처럼 민주적 담론장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의 조화를 위해 그 활용 방향의 모색이 요구된다. (1080자)

3.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① 만점 :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 ②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분량에 따른 감점

- ① 원고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논제 I> (601자 이상~700자 이하)

- 500자 미만: 감점 20점
-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 8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II>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 900자 미만 : 감점 20점
- 900자 이상~950자 미만: 감점 10점
- 1150자 이상~1200자 미만: 감점 10점
- 1200자 이상 : 감점 20점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 처리)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나]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가], [나] 논지의 차이가 잘 드러나게 서술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 채점 시 유의사항

- (1) 제시문 [가]와 [나]는 정보사회 속 기술적 도구를 통해 실천되는 ‘감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와 [나]는 감시의 양상과 성격에 대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가]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감시가 시민들의 일상을 향해 작동되는 측면만 다룬다. 그에 반해 [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권력 기관과 시민들의 감시 가능성이 쌍방향으로 실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는 감시의 부정적 성격을 부각하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일상생활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에 따라 권력 기관,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역 감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2)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파악해서 요약하고 그 논지의 차이(출제자의 의도 파악)를 대비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를 한다.
- (3) 각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는데,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는가를 중요시한다.

2) <논제 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바]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서술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
- ④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마]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
- ⑥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 채점 시 유의사항

- (1) 제시문 [바]는 인간향상에 관한 세 가지 논점을 드러낸다. 첫째, 향상기술이 인간 존재와 인류 사회의 나아짐을 보장하진 않는다. 기술이 이끄는 향상은 인간의 부분적인 능력 개선에 국한된다. 둘째, 인류는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켜 왔기에, 향상기술이 인간 가치를 위협한다는 일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셋째,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의 나아짐을 위해 향상기술을 사용하는 태도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공동체적 관리를 중시하는 태도의 조화가 필요하다.

- (2) 제시문 [다]는 기술 문명에서 탈주해 자연에 귀속되는 순간을 누리는 시적 화자가 등장한다. 그는 핸드폰 등으로부터 ‘언플러그드’되면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다. [바]의 관점에서 [다]의 상황은 개인의 도피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로 규정될 여지가 있다. 시적 화자의 상황에 대한 공감 여부를 떠나서 향상기술의 바람직한 사용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의 고민이 더 중요하다.
- (3) 제시문 [라]는 2040년까지 인간에 근접한 로봇이 개발되고, 2050년이 지나면 지구의 주인이 인간에서 로봇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한다. 사람의 마음을 물려받은 로봇, ‘마음의 아이들’에 의해 인류의 미래가 새롭게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과학기술을 통한 향상이 곧바로 인류 사회의 나아짐이 아니라는 [바]의 주장과 대치된다. [바]에 따르면, 마음 업로딩 기술 등은 당위적으로 수용할 대상이 아니라 그 활용 방향을 숙고해야 할 논제이다.
- (4) 제시문 [마]에 등장하는 양코마우스™는 유방암 치료를 위해 개발된 실험쥐이자 하나의 상품이다. 그것은 인간 신체를 개선시켜주는 긍정의 이미지만을 갖지 않는다. 인간향상의 가능성과 윤리 침해의 이중적 비유로서 생명과 상품, 인간과 동물, 암수의 경계를 교란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양코마우스™는 유방암에 걸린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활용하는 대상일 수 있지만 공동체 차원의 논의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바]의 관점처럼 민주적 담론장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의 조화를 위해 그 활용 방향의 모색이 요구된다.
- (5) 제시문 [바]의 관점에 근거해서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적절히 설명할 경우 높게 평가한다. 특히 제시문에 대한 분석능력 및 추론능력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논리 정연하게 문장을 서술해 나가는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4.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육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술고사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문학』, 『통합사회』의 ‘사회 변화와 공존’ 영역, 『사회·문화』의 ‘현대의 사회 변동’ 영역, 『생활과 윤리』의 ‘과학과 윤리’ 영역, 『윤리와 사상』의 ‘인간과 윤리사상 및 사회사상’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류사회의 변화’를 성찰해 보는 데 목표를 두었다.

[가]에서 [바]에 이르는 제시문들은 디지털 시대 ‘감시’를 둘러싼 다른 논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별되었다. 또한 생명공학에서 인공지능에 이르는 오늘날의 첨단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특히 향상기술이 인간 존재와 인류 공동체의 나아짐을 견인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의도하였다.

본 논술고사에서는 첫째, 디지털 사회 감시 문화를 바라보는 다른 태도, 즉 디지털 기술이 권력의 일방적 감시에 의해 인권 침해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입장(제시문 [가])과 정보사회의 감시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역감시 기제가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입장(제시문 [나])을 제시하였다. 이들 제시문은 정보사회 속 디지털 감시 체제에 대한 해석적 입장을 요청하기 위해 선별되었다.

둘째, 제시문 [다]에서 [바]는 과학기술 문명과 인간 삶의 관계에 대한 입체적 사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선별되었다. 제시문 [바]는 인간향상을 유도하는 향상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 독해를 해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제시문은 각각 기술 문명으로부터 탈주하여 자연에서 만족을 느끼는 개인의 실천 행위(제시문 [다]), 향상기술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로봇으로 진화해 가야 한다는 주장(제시문 [라]), 인간을 위해 도구화 된 생명의 한 사례인 양코마우스™을 통한 윤리적 질문(제시문 [마])이 제시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담론장에서 향상기술의 활용과 제기되는 각종 윤리적 문제 대응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의 조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제시문 [바])에서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술고사는 응시생들이 다양한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한 후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서술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각 텍스트를 개별적이며 고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술고사는 성격이 다른 텍스트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험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논술 답안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을 다른 제시문의 내용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5.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에 따라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문제는 현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문학』, 『통합사회』의 ‘사회 변화와 공존’ 영역, 『사회·문화』의 ‘현대의 사회 변동’ 영역, 『생활과 윤리』의 ‘과학과 윤리’ 영역, 『윤리와 사상』의 ‘인간과 윤리사상 및 사회사상’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류사회의 변화’를 성찰해 보는 데 목표를 두었다. 각각의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여부
[가]	『디지털 프라이버시』	김상현	커뮤니케이션 선북스	2018	xiv~xvii	O
[나]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홍성욱	책세상	2002	10~13, 115~128	O
[다]	『제국호텔』	이문재	문학동네	2004	110~111	X
[라]	『매일경제』 (「알파고가 궁금한 당신에게」)	이인식	매일경제	2016 (4월15일)	컬럼 기사	O
[마]	『검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여성인간@_양코마우스TM를_만나다』	다나 J. 해러웨이	갈무리	2007	175~177	O
[바]	『일본비평』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향상의 생명정치학」)	신상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72~95	O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은 현대인의 평범한 생활 속에 도사리고 있는 디지털 감시체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별다른 저항 없이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도구들이 현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특히 제시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인격과 사회적 정체성을 동질적으로 유지시켜 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대인은 디지털 기술 문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생활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나]는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은 기존 벤담의 파놉티콘에 구현된 감시의 원리가 현대 정보사회에 스며들어 ‘규율 사회’의 기본 원리인 파놉티시즘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푸코의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제시문은 푸코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 정보사회가 탈파놉티시즘 질서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 디지털 사회가 만인이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는 쌍방향 감시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감시 기제의 동시적 작동을 두고, 제시문은 시놉티콘(synopticon) 모델의 실현을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이문재의 시집 『제국호텔』에 등장하는 시 「비박」 전문이다. 시적 화자는 깊은 밤, 잣나무 숲에서 핸드폰을 끄고 자연에 귀속된다. 그는 기술 문명의 이기로부터 완전한 해방감을 누리면서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속박되어 있는 현대인의 현실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제시문 [라]는 2050년이 지나면 지구의 주인이 로봇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간의 마음을

물려받은 로봇, 즉 ‘마음 업로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로봇이 새로운 인류사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게 제시문의 주장이다.

제시문 [마]는 인간향상의 가능성과 윤리 침해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양코마우스™의 활용 및 여러 윤리적 문제를 민주적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 치료를 위해 개발된 실험쥐 이면서 상품이고, 동물이지만 인간의 일부를 가진 양코마우스™은 향상기술의 수용 과정에서 현대인이 취해야 할 태도를 상기시킨다.

제시문 [바]는 『일본비평』에 게재된 논문,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향상의 생명정치학」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제시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상기술이 인간 존재와 인류사회의 나아짐을 보장하진 않는다. 기술이 이끄는 향상은 인간의 부분적인 능력 개선에 국한된다. 둘째, 인류는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켜 왔기에, 향상기술이 인간 가치를 위협한다는 일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셋째,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의 나아짐을 위해 향상기술을 사용하는 태도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공동체적 관리를 중시하는 태도의 조화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본 논술고사 문항은 경희대학교 수시 논술의 전통적인 논제 유형을 수용했다.

<논제 I>은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자료에 대한 독해력과 비교·분석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논제 II>는 제시문 [바]의 내용이 제시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서 제시한 상황 또는 입장을 평가하는 문제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태도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